

'배구 여제'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우승까지 1승 남았다

정관장과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3세트부터 18점 몰아쳐 '리버스 스윕' 4일 대전서 3차전... "대전 원정경기서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리겠다"

프로배구 2024-2025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 2차전이 끝난 뒤 김연경(35·흥국생명)은 "약간 울컥하고 뭔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난 2005-2006시즌 V리그에 데뷔해 곧바로 우승을 경험하고, 일본과 튀르키예 리그를 거치며 세계 최고의 여자배구 선수로 활약했던 그는 눈물이 많은 선수가 아니었다.

올 시즌이 끝나고 코트를 떠나는 김연경은 2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22점을 내는 활약 속에 세트 점수 3-2 (23-25 18-25 25-22 25-12 15-12) 승리를 이끌었다.

김연경은 2세트까지 4득점, 공격성공률 18.18%에 그쳤으나 3세트부터 5세트까지 혼자 18점을 몰아쳐 짜릿한 '리버스 스윕' (역습)을 연출했다. 김연경에게 이 경기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20년 동안 이어 왔던 선수 생활의 '마지막 흥겨움' 일수도 있어서다.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에서 먼저 2승을 수확한 흥국생명은 4일과 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챔피언결정 3·4차전 가운데 한 판만 이기면 역대 5번째이자 6년 만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 김연경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려면, 팀이 대전에서 두 판을 모두 져야 한다.

2년 전 안방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돌아갔다가 적지에서 두 판을 다 내주고 역대 최초의 챔피언결정전 역습을 당했던 흥국생명으로서 가능성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김연경은 "팬들도 우리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대전 원정에서 마무리하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김연경이 V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건 2005-2006시즌과 2006-2007시즌, 2008-2009시즌 세 번이다.

이 세 번의 챔피언결정전에서 모두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한국 무대를 평정하고 해외로 떠났던 김연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스포츠계가 사실상 멈추자 2020-2021시즌 전격적으로 V리그에 돌아왔다.

김연경은 여전히 리그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자랑했지만, 유독 챔피언결정전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2020-2021시즌은 GS칼텍스, 2022-2023시즌은 한국도로공사, 2023-2024시즌은 현대건설에 각각 밀려 준우승의 고배를 마셨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정규리그 6라운드에 전국을 돌며 '고별 경기'를 펼쳤던 김연경은 '라스트 댄스'의 마지막 무대가 대전 충무체육관이 되길 희망한다.

김연경의 바람대로 3차전, 혹은 4차전에서 올해 여자배구 최후의 승자가 가려지면 세계적인 배구 스타의 마지막 흔적이 대전 충무체육관에 남는 것이다.

전력과 여러 주변 환경 모두 흥국생명이 유리하다.

정관장은 현대건설과 플레이오프 3경기를 치르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라와서 체력 문제를 노출했지만, 흥국생명은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고 챔피언결정전을 준비해왔다.

2차전에서는 사생결단하겠다는 각오로 경기



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2차전 경기.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한 흥국생명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한 정관장의 초반 기세에 밀려 먼저 두 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세 세트를 따내고 승리해 분위기가 잡혔다.

흥국생명은 2차전에서 정관장이 준비한 다양한 변칙 작전에 고전했다.

김연경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관장이) 새로운 걸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목적타 서브 선수 시야를 가리는 등 새로운 걸 준비해서 당황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흥국생명 선수들은 경기 중반부터 이를

극복하기 시작해 결국 역전승을 일궜다.

흥국생명이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3차전 역시 유리하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는 정관장은 어떻게든 홈팬 앞에서 1승을 따낸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화성특례시장배 단체전 3관왕

임주현·박동안·박승우, 공기소총 입사·공기소총 복사·화약소총 금 합작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이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에서 최근 열린 '제2회 화성특례시장배 겸 2026 상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광주시청 장애인 사격팀은 메달 7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에서는 임주현(633.7점), 박동안(630.9점), 박승우(629.8점)이 도합 1894.4점으로 경기도(1889.4점), 대전(1897.3점)을 이기고 금메달을 얻어냈다.

공기소총 복사(R5) 단체전에서는 박승우(637.9점), 임주현(634.7점), 박동안(634.7점)이 1907.3점을 합작하면서 금을 더했다. 화약소총 복사(R9) 단체전에서도 박승우(622.4점), 박동안(615.5점), 임주현(612.3점)이 1850.2점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단체전 3관왕을 이뤄냈다.

임주현은 R4개인전과 R5개인전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얻어냈고, 박승우는 R5 개인전과 R9 개인전에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한편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은 지난해 10월 경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선수단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웃어보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남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에서 1902.2점으로 비공인 세

광주·전남 육상선수들, 전국대학선수권 활약

조선대 오재혁, 해머던지기 금

제80회 전국대학 육상경기선수권 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선수들이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선대 오재혁(사진)은 남자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51m59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목포대 김진규(48m40)가 차지했다.

조선대는 이동현, 강재혁, 양창식, 박현욱으로 구성된 남자 400m 릴레이에서 3분 37.5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금메달은 한국체대(3분 20.18), 동메달은 경운대(4분 07.41)가 따냈다.

이경민(조선대)은 멀리뛰기에서 7.24m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7종경기(100m, 200m, 800m,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여자 결승에서는 목포대 김정인이 1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대학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1일부터 3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구례구청 엄하진, 평창오대산천씨름대회 국화장사

무궁화급 김다영·매화급 김채오 우승

김채오(안산시청), 엄하진(구례군청), 김다영(괴산군청)이 평창오대산천대회 여자부 각 체급 장사에 올랐다.

김다영은 3일 강원 평창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체약 2025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 씨름대회 여자부 무궁화장사(80kg 이하) 결정전(3판 2승제)에서 이 체급을 26차례 제패한 '절대강자' 이다현(부산시씨름협회)을 2-0으로 꺾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다영은 이다현을 상대로 몇집이로 기선을 제압한 뒤 끝어치기에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국화급(70kg 이하)에서는 엄하진이 김주연(괴산군청)을 2-1로 제압하고 통산 16번째 장사(국화장사 14회·여자천하장사 2회) 타이틀을 가져갔다.

매화급(60kg 이하)에서는 김채오가 김시우(구례군청)를 2-1로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안산시청(경기도)이 괴산군청(충청북도)을 4-3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 산불에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무기한 연기

경북지역 산불 여파로 '202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가 무기한 연기된다.

3일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8일부터 10일까지 경북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202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가 경상도 산불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는 영호남 우호증진과 화합을 목표로 매년 2차례 각 도에서 열리는 생활체육대축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2015년 시작돼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중단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렸다.

그라운드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을 두고 전남과 경

북지역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겨루며 최고령 참가자 감사패 전달, 스포츠 실천다짐 선서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정충, 안동, 영덕과 영양지역을 덮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다인 기자 kd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송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